

밍글라바, 오랜만에 연락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미얀마 사역과 기도제목 나눕니다.

1. 7월 25일은 고 정바울 선교사님의 1주년 기일로 보내면서 그분의 주님 사랑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선교 사명을 다시 한번 재헌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 벳마옥 상그라 보건소는 내전과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두, 그난족들에게 많은 의료 혜택을 주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난 5년동안 후원해 주셨던 더 멋진 세상 NGO에서 2024년부터 후원이 어렵게 되었다고 연락이 와서 자립을 준비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여태까지 넘치도록 도와 주신더 멋진 세상에 감사드립니다.

3. 벳마옥 프라미스홈 아이들이 내전으로

원또 프라미스홈으로 피난을 와서 2개의 프라미스홈 아이들이 합동으로 지내고 있으면서 크고 작은 문제를 직면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4. 원또 프라미스홈 지역도 내전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그런 와중에도 5명의 아이들이 입소해서 10명의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5. 예마웅 라이프 센터에 돼지 농장은 주님의 은혜로 돼지병으로 부터 보호하여 주셔서 잘 운영이 되고 있고 감사하게도 12월 4일에 공동체중에 한자매(원윈에)가 주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았다. 나머지 6명 형제자매도 구원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전기가 10월부터 주님의 은혜로 농장에 들어와서 잘 쓰고 있습니다.

6. 9월에 차량기금을 모금을 하였는데 감사하게도 1달만에 কমিশن 킹살렘 농장의 도움으로 기금을미리 보내 주셔서 현지에 꼭 필요한 차를 구입할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모든 사역에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항상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다가오는 한해를 기대해 봅니다.

2023년도에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농장 공동체 6명 형제자매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구원 받는 것이 저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으므로 그들의 가족들과 친척들이 구원을 받고 그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샬롬!

미얀마에서 정수자 올림